

광주 U대회 개최식 참석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문화전당 훌륭한 프로젝트... 성공적 개관 기대”

마크 리퍼트(42·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한국 부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 3월 홍기피습을 당한 뒤 아직 얼굴에서 밴드를 떼어내지 못하고 손목의 붕대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그는 지난 4일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마크 리퍼트 대사가 지난 4일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한미 양국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홍기피습을 당한 뒤 아직 얼굴에서 밴드를 떼어내지 못하고 손목의 붕대를 풀지 못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이 아시아 다양성을 부각하는 프로젝트여서 매우 흥미롭다”며 “이를 계기로 광주와 새로운 협력방안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U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불참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 아메리칸 코너를 바탕으로 광주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퍼트 대사와 일문일답.

문화전당이 개관되면 대사관측에서 광주와 문화행사를 함께 할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사실 문화전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기대가 많다. 건물 설계와 디자인 부분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전당 건립 사업은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부각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다. 광주시민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나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아메리칸 코너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은.

▲광주에 있는 아메리칸 코너는 한국에 있는 3곳 중 하나다. 이는 미국대사관의 광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 만큼 그 변화에 발맞추고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아메리칸 코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살펴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교관이나 대사관 관계자들이 광주에 자주 내려와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힘쓰겠다.

광주에 미국문화원을 재설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한국에서(미국 문화원)하고 있는 활동, 시설들을 끊임 없이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등 여러 현안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계 유대회에 북한이 불참했다. 남

“북한 선수단 대회 불참 매우 실망스러운 일”

“아메리칸 코너 운영 계기 시민과 소통 노력”

북교류에서 스포츠가 갖는 의미를 말해 달라.

▲외교역사에는 스포츠가 국가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역할을 한 전례가 있다. 미국 역사에도 ‘핑퐁 외교’(탁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틈 스포츠 외교)가 있다. 북한이 현재 한국의 조건없는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U대회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가 남북 대화와 화해의 길을 제시한 손을 내밀었으나 거부한 또다른 사례다. 그렇다고 남북의 미래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조인 한다면.

▲다문화 정책은 정부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도전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동의 운명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소속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미묘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사람들이 ‘한나라’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다

양한 교육과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홍기 피습 후 보여준 의연한 모습이 화제가 됐다.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한국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나와 가족, 아들 세운을 성원해줬다는 것이다.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이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성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한국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데 거리낌이나 주저함은 없다. 사건 이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는 열의가 오히려 강해졌다.

-더 나은 한미관계를 위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군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존 협력 체계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21세기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경, 에너지, 사이버 안보, 우주프로그램의 기술적 공유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기회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새로운 영역의 협력관계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적합하다.

-한국어 블로그를 운영하고, 트윗하는 이유는.

▲한국말 어려워요. 재미있습시다(웃음). 미국대사관 안에서 한국어 수업 듣습니다. 매일 한 시간 내지 1시간30분 가량 공부합니다.(리퍼트 대사는 이 부분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우리말로 했다.) 트위터와 블로그는 한국말을 효과적으로 배우면서 소통하는 좋은 방법 같다. 블로그와 트위터는 한국말 수업교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댓글을 달거나 할 때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더 좋은 표현 방법을 조언해주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다.(웃음)

-광주를 처음 방문한 소감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 한국음식으로 유명한 고장인 광주에 오래 머물지 못해 아쉽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훌륭하게 치르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별취재단=윤영기기자 penfoot@

■마크 리퍼트는?

미 스탠퍼드대 국제정치학 석사 ▲200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후보 좌관 겸 비서실장 ▲2005년~2008년 오바마 대통령(당시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보좌관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 진영 외교정책 선임보좌관 ▲이라크전 참전 공로 동성무공훈장

박근혜 정부, 문화전당 부정적 인식 큰 문제

1면 ‘문화전당 운영’서 계속

이러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문화전당 위상에 맞는 직제 편성 요구에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지 불과 30분 후에 차관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도 문제지만 뒷받침 받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직제 개편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새정치연합도 뒤늦게 직제개편안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일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 참석 차 광주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부의 직제개편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은 지도부에 정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한 뒤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방문하고, 청와대에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화전당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막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당 차원에서 추경 등 정부 현안을 지렛대 삼아 여권과의 물 밑 대화에 나서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7일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당력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회 문광위 소속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확고하고도 강해 정부가 조직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문화전당 조직개편안 강행 처리는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표가 지난 1일 당론으로 조직개편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효과적인 정부 압박이나 여권 핵심부와의 물밑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데도 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7일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리퍼트 美대사, 미국 남자 농구팀 격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농구 경기장을 찾아 미국 대표팀을 격려했다.

리퍼트 대사와 주한 미국대사관 임직원들은 4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농구 조별리그 미국과 터키의 경기가 열린 광주 동강대체육관을 찾아 경기 시작에 앞서 미국 대표팀을 격려했다.

미국 남자농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이지만 유니버시아드에서는 최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2005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까지 네 차례 대회에서 동메달 1개가 전부였다. 명예 회복을 노리는 미국은 이번 대회에 ‘농구 명문’ 캔자스대 단일팀을 출전시켰다.

리퍼트 대사는 “풀가신 할아버지가 캔자스대 출신”이라며 “농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캔자스대 경기를 직접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을 찾은 미국 남자대학농구팀을 격려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1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 협회(NCAA) 디비전 1 시즌 개막전 조지타운대와 오리건대의 경기에도 당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방문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지난 4월 국내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던 그는 “봄과 여름에는 야구, 가을과 겨울에는 농구를 즐겨 본다”며 웃어 보였다.

앞서 리퍼트 대사는 이날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터키를 상대로 1쿼터에 12-21로 뒤지는 등 고전하던 캔자스대는 3쿼터 이후 역전에 성공, 결국 66-57로 승리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동업해서 운영 하실 분 환영!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매매 22억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

